

科學技術의 創造와 革新으로

— 科學技術界의 發展策提示, —

친애하는 科學技術人 여러분! 이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代議員 여러분!

辛酉年 새해를 맞이하여 오늘 科學技術處 李應善次官, 元老科學技術人, 그리고 來賓 여러분을 모시고 제16회 정기총회를 갖게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混沌과 정체를 벗어나서 총화된 국민의 노력과 예지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해에는 세계적인 에너지파동과 일체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北韓共產集團의 도전적인 作態에 대처하면서 한편으로는 부조리와 비위를 타파하고 정의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한해였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올해는 땀흘려 성취한 터전위에 모든 국민의 염원인 새로운 민주복지사회를 건설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科學技術人은 창조와 혁신으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야 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科學技術人은 투철한 국가관과 사명감을 갖고 상아탑에서 또는 연구소와 산업현장에서 맡은바 직무에 전념함으로써 우리나라 과학기술진흥과 창달에 精勵하여 왔습니다.

이와같은 노력으로 우리의 국력이 오늘날과 같이 신장되었으며 이제 새로운 민주복지국가건설에도 원동력이 될 것으로 확신하는 바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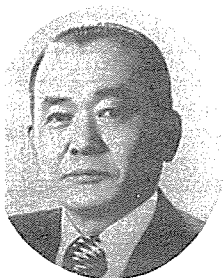
친애하는 과학기술인 여러분!

본인이 지난 3년전에 先輩科學技術人과 회원여러분의 권유를 받아 本聯合會 會長에 취임할 당시만해도 연합회는 사업규모가 1억원 정도에 불과하였고 자체능력이 부족하여 종합학술대회마저 타기관에 위탁, 개최하는등의 실로 허약한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동안 본인은 科學技術人의 정당한 사회적 인식과 권익을 도모하고 연구활동과 기술혁신을 위한 투자를 증대토록 하는 한편 연합회의 면모를 일신하는데 주력하여 왔습니다.

이제 우리 聯合會는 회원여러분의 능동적인 참여와 협동, 그리고 사무처의 부단한 노력으로 사업규모는 물론 대내외적인 활동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지난해 우리 聯合會는 國家研究課題導出事業과 科學技術政策, 防災科學, 國民住宅問題등의 연구발표를 통하여 과학기술계가 안고있



閔寬植 會長

새民主福祉國家建設에 副心

學術活動 造成事業도 擴大—

는 여러가지 문제점과 발전책을 제시하고 이를 정부당국과 관계요로에 건의하여 하나씩 해결하여 왔으며 국민생활과학화운동을 주도하고 과학화모범사례발표회와 새마을기술봉사단활동사업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중점사업의 하나인 학회학술활동조성사업을 정부와 산학협동재단의 협조로 79년도보다 50%가 증액된 1억 7백만원을 확보하여 1백여개학회의 학술활동을 지원, 장려하는 한편 세번에 걸친 국내외한국과학기술자종합학술대회와 국제과학기술강연회를 성공리에 갖게됨으로써 국제간의 학술교류를 돈독히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발전과정을 종합정리하고 체계화하여 독립된 “韓國科學技術30年史”를 발간하고 회원단체 상호간의 협력축진을 위한 친선행사를 갖는등 聯合會의 인식을 제고하여 면모를 새롭게 하는데 힘써 왔습니다.

금년에는 지난해에 이룩된 업적과 교훈을 거울삼아 국가시책에 바탕을 둔 기본사업과 계속사업에 대하여는 물론 양적인 면에서 보다 활성화시킬 계획이며 학회의 진취적인 학술활동을 진작 시키기 위하여 80년도 보다 50%가 많은 1억 6천 3백만원을 보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으로는 創造, 開發, 革新에 관한 세미나와 科學技術人名辭典編纂事業을 추진하고 회원단체와 공동으로 과학대중화 캠페인을 전개하여 과학기술진흥의 풍토를 조성토록 할 방침입니다.

이와같은 계획사업을 효과적으로 성취하고 우리가 바라는 새로운 민주복지국가건설의 일익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는 물론 정부당국의 지원과 언론관계자 여러분의 이해가 요청됩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제반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에는 우리 연합회가 더욱 더 발전하여 국가와 사회가 바라는 단체로 육성되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새해에 여러분과 가정에 만복이 같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1981년 1월 27일

韓國科學技術團體總聯合會

會 長 閔 寬 植